5
사우디아라비아

한국학교 2개

관할공관	학교명
주사우디대사관	리야드한국학교
주젯다총영사관	젯다한국학교

1 출국 전 주변 정리

가 이삿짐 꾸리기

▫ 사우디 주택의 특징

- 사우디아라비아왕국(이하 사우디)의 주택은 기후의 영향으로 아예 창문이 없거나 있더라도 최소한의 작은 크기이며, 한국처럼 단열이 잘되는 창문이 거의 없음.
- 모기 등의 잡벌레가 거의 없기에 방충망 시설이 빈약한 편임.
- 외국인을 위한 전용 주거 단지(컴파운드 혹은 빌리지라 칭하며, 사우디인 출입금지)가 있으며, 이슬람 생활 관습의 영향을 받지 않기에 외국의 휴양지처럼 자유로운 생활이 가능함.
- 대부분 방과 거실 모두에 냉난방 겸용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으며 전기세가 저렴함.
- 수돗물은 담수와 지하수가 6:4 비율로 섞여 있어 염분이나 석회질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에 식수는 반드시 생수나 정수 처리된 물을 사용해야 함.

▫ 이삿짐 꾸릴 때 주의사항

- 국립국제교육원의 안내에 따라 이삿짐 업체를 지정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항공이나 배편으로 화물을 운송함. 항공 운송 시에는 10~20일 정도, 배편 운송 시 40~80일 정도가 소요됨. 항공이나 배편 스케줄, 통관 절차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남.
  ※ 2020년 12월 부임 시 항공 운송으로 이삿짐을 부쳤으나, 통관상의 문제로 부임 후 50일 만에 이삿짐을 받을 수 있었음.
- Door To Door로 계약하기에 집까지 현지 업체가 배달만 해 줌.
- 다량의 의약품(영양제 등)이나 서적은 통관 시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명해야 하는데, 간혹 압수되기도 함.
- 대다수의 생필품은 현지에서 구매가 가능하나 양복과 구두는 한국에서 가져오는 것이 좋음. 의류의 경우 현지 옷 치수가 한국과 다르고, 대체로 가격이 비쌈.
- 주방용품은 한국보다 다양하기에 현지에서 구입하는 것이 좋으나, 전임자 주택 승계시 대부분 비치되어 있기에 사전 확인이 필요함.
- 김치냉장고는 현지에서 구하기 어려우나 크게 필요하지는 않으며, 가습기, 냉장고, 믹서기, 에어프라이기 등의 가전제품은 현지에서 구입하는 것이 편리함.
  ※ 반입 금지 물품 : 이슬람 이외의 종교서적, 성물(십자가 등), 음란물 동영상, 노출이 심한 사진이 수록된 책자, 다량의 USB나 CD, 다량의 농산물, 알콜(술), 돼지고기, 마약 등 이슬람 율법에서 금지한 물품

▫ 식재료 가져오기

- 부임 초기에는 현지 사정에 익숙하지 않아 부임 시 가져온 식재료로 생활을 해야 함. 한인 마트에서 기본적인 한국 식자재를 판매하지만, 종류가 다양하지 않고 가격 면에서 한국보다 1.5~3.5배 정도 차이가 나기에 부임 시 수하물로 가져올 것과 이삿짐으로 가져올 것 등을 잘 선별하여야 함. 스팸 등 돼지고기가 함유된 식자재는 반입이 불가함.
  ※ 2023년 9월 2일 기준 현지 대형 마트 국제식품 코너에서 판매되는 신라면 1개의 가격이 14리알, 즉 4,900원 정도임.
- 된장류, 김치류, 양념, 액체류 등은 입국 시 수하물로 가져오는 것이 편리함. 이삿짐으로 부치면 상할 염려가 있음(한국에서 먼저 야적장에서 보관하였다가 부두나 공항으로 운송하고, 다시 리야드 세관에서 장기간 보관하기 때문).
- 김, 통조림, 새우젓, 멸치 등도 구할 수는 있으나 현지 판매품의 상태가 좋지 않아 새우젓, 조미김, 꽁치/고등어 통조림(참치캔은 많음), (잔)멸치, 다시마, 건조미역 등은 가져오면 좋음.
- 쌀은 교민 대부분이 현지 마트의 이집트 쌀을 이용하고 있음. 한국과 별 차이가 없음. 잡곡류는 찹쌀, 귀리, 팥, 녹두 등은 구할 수 있으나 보리는 구하기가 어려움.

(나) 자녀 교육

▫ 한국학교 입학할 경우(초등)

- 국내 전학 시 필요한 서류와 동일(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등)
- 교과서 등은 한국학교에 준비되어 있음.
- 학비는 연 200만원 정도(리야드 한국학교 기준)

▫ 국제학교에 입학할 경우(중등-영미계 국제 학교, 현지 로컬 국제학교 등)

- 구비서류 : 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졸업(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영문 번역 및 공증 필요), 여권사본(자녀 및 본인) 및 부모의 외국인등록증
- 교재는 모두 개인이 구매해야 하며, 책값이 비쌈.
- 학비는 학교에 따라 다르나 연 3,000~7,000만원 사이임(학년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고, 입학금과 영어 테스트 비용을 별도로 받음).
- 점심 급식의 개념이 없어 모두가 도시락을 가지고 다님(한국학교도 마찬가지).

㉮ 한국의 개인 정보 관리

▫ 은행 계좌 및 카드 관리

- 현지에서의 재외 수당 등은 달러로 지급되기에 한국의 급여 개설 은행에 외화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유리함.
- 현지에서 한국의 금융 인증서 발급 및 갱신에 어려움이 많기에, 부임 시 인증서 유효기간을 반드시 점검하고, 각종 비밀번호 분실 시 재발급이 쉽지 않아 관리에 주의해야 함.
- 해외 부임 시 해킹이나 금융 사고를 대비하여 이체 한도를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택수당의 경우 개인 외화 통장으로 지급되기에 환전 수수료 절감을 위해서는 1일 이체(환전도 이체) 한도를 적당히 조절하여야 함. 현지에서 국내 은행의 이체 한도 증액이 불가능함.
- 해외 사용이 가능한 신용카드를 2개 정도 준비하여야 하며, 한국의 비자 체크카드를 이용해 현지화 인출이 가능하나 수수료가 비싼 편임.
- 공항과 시중 은행의 환전 수수료가 별 차이가 없기에 100~500달러 정도를 입국 시 공항에서 현지화(리알)로 바꾸는게 좋음. 원화는 환전이 되지 않음. 부임 직후 핸드폰 개통, 현지 마트 식자재 구입, 택시 이용을 위해 현지화(리알)이 필요함. 카드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수수료가 발생함. 교민 간에 개별로 원화-리알 환전이 가능함.

▫ 핸드폰 관리

- 한국의 휴대폰을 요금 변경 없이 그대로 가져와 사용할 경우 로밍 요금 등으로 과다한 통신비가 지출되기도 함. 통신사마다 월 1만원 미만의 장기 해외체류자를 위한 일시정지 요금제가 있기에 이를 사전에 신청하여야 함. 이 경우 단문 메시지는 수신이 가능함. SK 텔레콤의 경우 저렴한 표준요금제 선택 시 자체 앱을 통하여 와이파이 상태에서 한국으로 자유롭게 무료로 전화를 걸 수 있다고 함.

▫ 각종 증명서 관리

- 입국 시 바로 운전을 해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입국하는 것이 좋음(유효기간 1년).
- 현지에서 한국 나이스 시스템의 접속이 매우 느리고, 잘 접속되지 않기 때문에, 인사기록카드나 연수 이력 등은 미리 다운받아 오는 것이 좋음.
- 민원24로 각종 증명서를 발급할 때 국가 인증서, 포털사이트 인증서 등을 활용하여 접속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인증서를 준비하여야 함.

2 비자 발급 절차

가 종류

□ **사우디의 비자 종류는 30여종 정도**

- 2019년부터는 관광비자가 발급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사우디 공항에서 직접 받는 도착비자(관광비자)도 발급되고 있음.
- 취업을 위해서는 해당 스폰서의 초청장(비자슬립)이 우선 발급되어야 하고, 이를 가지고 한국에서 해당 비자를 만들 수 있음.
- 비자 발급 후 통상 90일 이내에 사우디에 입국하여야 하며, 입국 후 다시 90일 이내에 사우디 내무부에 이까마(거주증)를 신청하여 발급 받아야만 정상적으로 근무 가능함.
- 사우디는 특별히 스폰서 제도가 있는데, 스폰서만이 비자슬립을 만들 수 있으며, 리야드한국학교의 스폰서는 학교장임.

□ **방문비자 : 일시적인 방문을 위한 3개월간 유효 단수비자(취업 불가).**

□ **워킹비자 : 현지 도착 후 3개월 내 반드시 외국인등록증(이까마) 발급**

※ 2023년 9월 현재 본교 교직원은 모두 본 워킹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였음. 사우디 현지에서의 초청장 발급 및 최종 한국에서의 비자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3~6개월 정도였음.

□ **Special 비자 : 특별 비자로, 관용여권(official passport) 소지자에게 발급되는 비자임. 외교관 비자와 동일하게 간단한 서류신청만으로 사우디 비자센터가 아닌 주한사우디대사관에서 직접 발급함. 입국 시 가족과 함께 입국 가능하며, 사우디문화원 인증이 필요없음.**

나 발급 시 서류

□ **해당 서류는 모두 영문으로 발급받아야 함.**

- 워킹비자로 입국 시에는 부임자 이까마 수령 후 결혼증명서 등 5종의 서류를 구비하고 별도의 가족초청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서 비자를 만들어야 함. 자세한 사항은 사우디 비자센터에 잘 안내되어 있음.

□ **워킹비자 : 여권 및 사본, 고용계약서, 출장명령서, 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초청장,**

최종학력증명서(사우디문화원 별도 인증 후 제출), 교원자격증(영문공증), 범죄경력회보서 혹은 신원조사서, 이력서(영문), 재직증명서, 사우디고용업체의 위임장(델리게이션), 초청장, 서약서, 확약서, 비자신청서, 비자센터예약서, 사진2매, 여권사본

□ 스페셜비자 : 관용여권 및 사본, 비자슬립, 비자노트(외교부 발행), 동반가족의 관용여권 및 사본, 비자신청서류(서약서, 확약서, 비자신청서), 이력서(주한사우디대사관 양식), 사진 2매

㉰ 발급 절차

□ **사우디에서 할 일**

- 초청장 발급 의뢰 : 여권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입하여 사우디의 비자 사이트인 무낌에 온라인 신청
- 학교 라이센스 등 별다른 문제가 없을 시 10일 이내에 초청장이 발급됨.
- 여러 사정으로 무낌에서 발급이 되지 않으면 사우디 교육부 혹은 대사관의 협조를 받아 사우디 외교부와 사우디 노동부에 직접 신청해야 함.

□ **한국에서 할 일**

▸ 스페셜 비자(7~10일 소요)

- 초청장을 출력하여 스페셜 비자 요건에 맞게 서류 준비
- 사우디 대사관을 방문하여 비자 신청(가족 초청 비자도 동시 신청 가능)

▸ 워킹비자(20~50일 소요)

- 15종의 서류를 모두 영문으로 준비(10일 정도 소요)
- 최종학력 인증은 사우디문화원에서 별도 예약으로 인증 받아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됨(15~20일 정도 소요).
- 사우디비자센터에 온라인 예약(필수) 후 방문하여 서류 접수(3~7일)
- 비자센터에서 서류 점검 후 주한사우디대사관으로 서류 송부(2~10일, 특히 공휴일이나 라마단 휴가 시에는 휴가가 끝나고 송부함)
- 주한사우디대사관에서 심사 후 비자 발급(5~10일 정도 소요)
- 가족 초청 비자는 추후 이까마 발급 후에 별도의 초청 비자를 신청해야 함.

□ **입국 후 할 일**

▸ 외국인등록증(이까마) 발급

- 학교장 업무뿐만 아니라 은행, 운전 등 모든 일이 이까마 발급 후 가능하기 때문에 입국 후 바로 신청해야 함.
- 취업비자, 건강진단서(현지발부), 신청서 등 구비
- 본교 사우디 직원이 내무부의 여권과(자와잣)에 신청하며, 서류 하자나 문제가 없을시 2주 이내에 발급됨.

▸ 이까마 등록

- 이까마 번호와 본인 명의 핸드폰 번호를 지문등록기에 입력해야 함.
- 핸드폰은 여권만으로도 구입 가능함.
- 사우디 정부의 앱셔앱을 실행하여 본인 정보 입력 및 이까마 등록 확인
- 이까마 등록시 반드시 현지 의료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3 현지 도착 시 챙겨야 할 일

㉮ 자녀 교육

□ **초등학생의 경우 한국학교에 입학 추진**

□ **중학생 이상일 경우 상기에 언급된 서류를 갖추어, 국제학교에 입학 추진**

□ **사우디는 9월 학기제이며, 2022년부터 사우디의 모든 로컬학교 및 대다수 국제학교가 3학기제를 실시하고 있음.**

㉯ 주택임차

□ **스포츠 시설과 일부 문화 예술 시설을 갖춘 안전한 외국인 거주 단지(컴파운드)에 주택을 임차하는 것이 좋으나 일반 주택보다 임차 가격이 3~5배 정도 비쌈.**

□ **요즘 리야드의 비전 2030의 영향으로 많은 외국인이 입국하고 있기에 주택 사정이**

원만하지 않아 괜찮은 컴파운드의 경우 3~6개월 정도 기다려야 입주가 가능함. 따라서 전임자의 주택을 승계하는 것이 이상적임.

㉰ 차량 구입 및 면허증 발부

- 이까마가 발급되어야 가능함. 면허증은 무시험으로 발급받을 수도 있고, 직접 면허장에서 간단한 도로 주행 시험 후 발급 받을 수도 있음. 면허증 취득 이후 차량을 구입하고 보험을 가입한 뒤 차량 등록이 가능함. 사우디는 2019년 부과세 15% 확정 후부터 신차 가격이 급등하여 중고차 수요가 높기에 신차보다는 중고차 거래가 더 활발함. 중고차 거래 시 차량 이전 등록은 앱셔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함(10분 정도 소요).
- 2023년부터 일부 노선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고, 우버나 택시가 많지만 아직은 개인 차량이 없으면 많이 불편함. 버스 요금은 저렴하나 택시 및 우버 요금은 최근 많이 올랐음(기본요금이 50리알 정도이며, 30분 정도 이동시 요금이 100리알, 즉 34,000원 정도이고, 시간대에 따라 요금이 유동적임).
- 한국보다 차선이 넓고, 신호가 거의 없는 도로 체계 덕분에, 시내도로인 경우에도 평균 속도가 80~120 정도라 과속하는 경우가 많음. 이로 인해 많은 한국인이 사우디 운전 시스템에 잘 적응하지 못함. 그러나 도로가 넓고 차선도 많아 차간 거리만 잘 지키면 한국보다 더 안전하게 느껴지기도 함.
- 사우디 면허증 발급 전까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함.
- 차량 관련 범칙금이 비싸고, 도로에 CCTV가 많아서 운전시 각별히 유의해야 함. 특히, 차량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시 벌금이 180,000원 정도기에 네비게이션 작동 시에도 주의해야 함.
- 역주행하는 차량, 교차로에서 굉음을 내며 드리프트하는 차량, 4차로에서 갑자기 1차로로 들어와서 유턴하는 차량 등이 간혹 있기에 항상 방어 운전하며 옆차선의 차량 움직임을 잘 살펴야 함.

㉰ 입주 전 기거 및 정산처리

- 전임자의 주택을 승계하는 것이 편리하며, 부임전 현지에서 미리 주택 수당을 신청하여야(3월 부임시 2월 중순경) 부임후 1개월 이내에 주택 수당을 받을 수 있음.
- 전임자 주택 승계 시에는 입국 후 바로 거주가 가능함. 차후 본인의 외화통장으로 주택수당을 받아 컴파운드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본인 명의의 사우디 통장으로 1차 송금 후(리알로 입금됨), 이를 다시 컴파운드 회사로 리알로 송금하면 됨. 이까마만 정상 발급되면 후자가 쉽고 안전함. 입주 후 주택임차료 납부 전까지 통산 1개월 정도는 주택임대 업체에서 이해해 주는 편임.
- 주택 계약시 보증금을 요구하는데,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야 구임시 분쟁이 없음.

㉱ 가구, 가전제품 등 생활용품 구입 요령

- 대형 쇼핑몰 또는 가전, 가구 전문 상가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으나 요즘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많이 구입하고 있음. 한인 커뮤니티에서 귀국자들이 처분하는 중고 제품도 싸게 구입할 수 있음.
- 한국에서 쓰던 가전제품을 가져올 때는 반드시 전임자와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음. 대부분의 컴파운드가 풀옵션이라 기본적인 가구나 가전제품 등을 모두 제공하고 있음(침대, 책상, 옷장, 화장대, 소파, 식탁, 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오븐 등).
- 압력 밥솥은 현지 구입이 어려워 가져오는 것이 좋음.
- 아부하킴, 부자컴퍼니 등 중동 전문 배달 업체를 이용하여 한국에서 다양한 식재료나 물건을 항공으로 배송 받을 수 있음. 1kg당 5~8만원 정도이며, 3~1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됨. 학습준비물도 여기를 이용하여 사우디에서 온라인 주문 배송이 가능함(무게, 부피에 따라 요금이 다름). 학습준비물의 경우는 대사관 파우치를 통하여 들여올 수도 있음. 이 경우 비용은 비슷함.

㉮ 이삿짐 풀기

▫ 경우에 따라 소정의 통관 비용을 별도로 지불해야 함.

▫ 사우디는 택배 배달이나 이삿짐 운송 시 반드시 현지 운송 업체가 사전에 본인에게 전화를 함. 전화 연결이 되지 않으면 운송 및 배달이 지연됨. 따라서, 이삿짐 도착 전에 통화 가능한 현지 전화번호를 다시 한 번 확인하여야 하고, 변경 시에는 한국의 이삿짐 업체에 메일로 알려 전화 통화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주변의 공공기관 이용 요령

▫ 사우디의 공무원은 한국보다 훨씬 권위적임. 비자 문제, 학교인허가 문제 외에는 개인적으로 사우디의 관공서를 출입할 일은 없음. 대부분의 관공서는 외국인의 경우 사우디 직원(GRO)과 대면으로 업무를 처리함.

※ 사우디제이션 : 사우디 정부는 자국민 취업을 위해 외국계 기업이나 사업체(학교 포함)에서 의무적으로 사우디인을 일정 비율 고용하도록 법으로 정하였는데, 이를 사우디제이션이라 함. 특히, 행정 및 관공서 업무를 대행할 사우디 직원은 반드시 채용해야 하고, 이를 GRO(Goverment Relation Officer)라 함. 사우디 관공서의 업무 담당자들이 GRO만을 상대하는 경우가 많음.

▫ 모든 문서가 아랍어로 되어 있으며, 영어로 원활하게 소통하기는 다소 힘듦.

㉰ 병의원 이용

▫ 사우디 자국민에게는 모든 국영 병원 진료가 무료라 공적인 의료보험은 없고 민영 의료보험 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음. 이까마 신청 시 반드시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까마의 신속한 발급을 위해 기본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음. 학교장은 의료보험 지원(70%)이 되기에 향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좋음.

▫ 대표적인 민영보험인 부파의 경우, 상위 등급 가입 시 피부과 미용진료를 포함한 모든 병원의 진료비가 무료이며, 건강 검진, 연 2회 안경 맞춤까지 무료로 제공됨. 이 경우 1년 보험료가 300만원 정도임. 1년에 30만원 정도인 기본 보험 가입자는 대부분의 보건소와 일부 의료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음.

- 의료장비가 최신이며 약제의 효능이 오리지널 약품(복제 약품 없음)만을 취급하기에 효과가 좋음. 병원 입원 시 모든 병상이 1인실로 되어 있으며, 사우디 현지에서 근무하는 한국 간호사도 많기에 병원 이용에 크게 어려움은 없음.
- 예방 접종 제도가 잘 되어 있기에 2023년 9월 기준 한국과는 달리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경우도 국가에서 무료로 제공함(한국은 상그릴라 백신 개인 부담 50만원 정도).
- 세하티 앱을 통해 집 근처나 원하는 병원의 진료 및 예방 접종을 예약하고 방문하여야 함. 앱에서 주치의를 지정할 수 있으며, 예약 없이 방문 시에는 당일 진료가 어려울 수도 있음.
- 약국은 24시간 운영하는 곳도 많으며, 가벼운 증상의 질병은 약사와 상의하여 처방 받아도 괜찮은 수준임.

㈜ 은행계좌 개설

- 학교의 주계좌와 같은 은행의 계좌로 개인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좋음.
- 계좌 개설 시 개인 전화번호와 이까마, 재직증명서(영문), 사우디 국토부에 등록된 정확한 주소명이 필요함.
- 접속 지연 및 비밀번호 오류 등으로 3회 접속 실패하면 은행계좌가 정지되며, 이 경우 온라인 콜센터나 지점을 방문하여 다시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에 관리를 잘 해야 함.
- SAB뱅크의 경우, 체크카드 분실 시 자동화 기기로 간단히 재발급 가능함.
- 공과금 납부, 비밀번호 및 전화번호 변경, 달러나 유로 같은 외화 입출금도 은행 앱이나 자동화기기로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수수료가 없음(환전, 타행 이체 시에만 약간의 수수료 부과).
- 이체나 현금 입금 시 돈의 용도를 꼭 밝혀야 함(급여, 개인채무, 가족이체, 세금 납부 등).

▫ 현재, 이슬람 율법에 의해 예치 금액에 대한 이자는 없지만, 2~3%의 이자를 지급하는 정기 예금이 출시될 예정임.

4 부임 시

㉮ 업무 인수인계 사항

▫ 월별 학교 회계 관련 일체의 장부 확인

▫ 학교 교육과정 운영 상황 및 학사일정 진행 사항

▫ 인적 네트워크(교사 자원, 교민, 사우디 교육부 관계자, 공관 관계자, 학교 거래 은행 담당자 등) 관련 사항

▫ 학교 홈페이지 수정

▫ 사우디 교육부에 신임학교장 인적사항 공문 제출

▫ 학교 허가증(1~2년마다 갱신해야 함), 학교임차료 계약서의 유효기간 확인

㉯ 주요 업무 처리 요령

▫ **공문서 발송**

- 공문 작성 후 해당지역 공관 한국학교 담당자에 메일로 제출함.
- 용량이 큰 첨부파일은 송부가 되지 않아 담당자 개인 메일로 전달해야 함.

▫ **공문서 수신**

- 공관에서 1차 접수 후 한국학교 담당자에게 이첩
- 공관담당자 출장, 휴가시 공문 수신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음.

▫ **사우디 교육부**

- 대부분의 자료 제출은 구글 공유 시트를 이용하여 왓츠앱으로 주고받음. 학교장 인증, 이사회 구성, 비자 관련 사항 등은 직접 공문으로 제출해야 함. 학교에서 요청하여 공관에서

영문과 아랍어로 작성한 공문을 사우디외교부로 보내면, 사우디외교부에서 각 부처로 전달하는 게 원칙임.

□ **학교 인허가 갱신**

- 학교허가를 1~2년 주기로 갱신을 해야 함. 갱신 시에는 씨빌디펜스(소방안전청)의 안전허가증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데, 허가증 받기가 담당자에 따라 매우 까다로운 편이며, 소요 기간은 2~5달 정도임. 라마단이 있는 달에 시작하면 휴가로 인해 시일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기에, 가능하면 라마단 2~3개월 전후에 신청하는 것이 좋음.
- 2023년부터 안전허가증 발급이 강화되어, 무까따살라마라는 전문소방 안전 업체가 발행하는 건물 안전 진단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는데, 비용이 300~500만원 정도임.

□ **학사 일정**

- 2021년부터 초·중·고 학기가 2학기제에서 3학기제로 변경되었고, 학년도 시작은 9월임. 전체적인 학사 일정은 사우디 교육부 홈페이지에 항상 게시되므로, 이를 참고하여 사우디 국경일과 라마단 재량휴업일 등을 정해야 함.
- 학부모가 대부분 여름에는 한국으로 장기 휴가를 가기에 여름방학을 빨리하는 편이므로, 1·2학기 수업일수를 잘 분배하여 개학일을 정해야 함.

㉰ 연수단 방문 시 섭외 가능한 기관

□ **공관이나 사우디 교육부 장학사를 통해 현지 학교, 교육부 방문 등이 가능함.**

㉱ 국립국제교육원 제출 서류 및 절차

□ **학비 지원, 주택수당, 왕복항공료, 가족 수당 등을 소정의 서류(공문, 신청서, 영수증 등)를 갖추어 대사관을 통해 공문으로 신청함.**

□ **모두 개인의 외화 통장으로 입금되나, 현지 사정에 따라 시일이 촉박한 경우 바로 학교 계좌로 입금도 가능함(이 경우 사전 의논 필요).**

5 귀국 준비

㉮ 귀국 전 정리해야 할 사항

- 학교 업무 인수인계 자료 준비
- 각종 학교 관련 계약사항 정리(자동차, 도난, 화재, 임대차 등)
- 학교 관련 인적 네크워크 관련 자료 정비
- 각종 서류 보완 정리
- 신임교장 입국절차 처리
- EXIT비자를 발급 받아야 출국이 가능함. 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은행계좌, 신용카드, 자동차 등 본인 명의로 등록된 사우디 자산이나 잠재적인 채무가 없어야 함. EXIT 비자를 발급 받는 데 1~2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기에 미리 준비해야 함. 간혹 EXIT비자를 받지 못해 다시 입국한다는 REENTRY 비자를 발급 받아 출국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당사자는 향후 7년간 사우디 입국이 금지되고, 추후 입국 시 벌금이 부과되며, 스폰서인 학교에도 직원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 반드시 EXIT비자를 발급 받도록 해야 함(2020년에 해당 사례 발생).
  - EXIT비자 신청 후에는 출국 시까지 차를 렌트할 수 없음(경우에 따라 소규모 업체에서 여권만으로 렌트가 가능하기도 함.). 따라서 차량 매각과 차량 인도 시점은 출국일을 잘 고려해서 결정하여야 함. 보통 출국일 한 달 전에 매각하고, 출국일 전날에 차량을 인도하는 경우가 많음.

㉯ 귀국보고서 준비

- 사우디 현지 한국학교 발전 방안
- 교육문화 교류 방안 등

㉰ 항공권 구입 및 정산 요령

-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음. 환불 불가, 유료 변경 등 다양한 조건의 항공권이 많기에 구매시 조건을 잘 확인하고 구매해야 함.
- 대금 정산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국립국제교육원으로 청구함.

㉰ 각종 보험관계

- 자동차 매각 시 보험 및 차량 검사 기일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함.
- 자동차 보험은 통상 1년 단위인데, 보험회사에서 단문으로 만기일 통보를 해도 확인을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기에, 사전에 본인이 알아서 연장해야 함. 이를 놓칠시 자동으로 벌금이 부과됨(현재, 100리알)

6 기타

㉮ 현지 사정

- 물가는 국내와 비슷하나 공산품 가격은 국내보다 비싼 편임(부가세 15%의 영향도 있음).
- 전기세가 저렴함.
- 과일이나 식자재는 국내보다 풍부하고 일부는 국내보다 가격도 저렴함. 식수는 반드시 생수를 구입해야 함.
- 다양한 국가의 레스토랑이 많은 편인데, 외식 가격이 높은 편임.
- 비전 2030의 영향으로 사우디인도 아바야, 니깝 등을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등 2019년부터 급격하게 변하고 있음. 이전의 폐쇄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다른 외국의 관광지처럼 자유로운 분위기로 점점 변해가고 있음.
- 자국민에 대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많은 사우디 여성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기에 외국인이 일할 기회가 해마다 줄고 있는 실정임(여성 운전 가능).

- 마흐람 제도(여성의 법률적인 행위 시 남성 가족의 허락을 구해야 하는 제도)가 일부 폐지되어 여성의 취업, 이혼, 외국 여행 등이 자유로워졌으며, 여성 운전자의 급증으로 중고차 가격도 급등하였고, 도로 정체도 이전보다 심한 편임.
- 하수도 시설이 부족하여 조금만 비가 와도 도로에 물이 넘쳐나므로 운전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함(웅덩이, 맨홀 등).
- 최근 한류 열풍으로 많은 사우디인이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고, 한국학교에 입학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음.
- 인터넷의 경우 한국에 비해 약간 느리며, 4G/5G인 경우에도 끊김 현상이 있음. 인터넷비가 한국보다 비싼 편임.
- 이슬람은 목, 금이 주말이고 시차가 6시간이므로 한국과 상이하여 보고 기일이나 상황에 신경 써야 함.

㉡ 기후

- 여름철에는 한낮 기온이 50도가 넘어가나, 12~2월의 겨울에는 최저 10도 정도까지 내려가기도 함.
- 젯다 지역은 겨울철에도 리야드에 비해 온화하고 연중 비가 자주 오며 습도가 높은 편임.
- 1~2월에는 밤사이 기온이 많이 떨어지므로 히터나 전기장판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외에는 거의 하루종일 에어컨을 사용함.

㉢ 외국인 학교 정책

- 사우디의 경우 노동시장은 주로 제3국인을 활용하기에 많은 외국인 학교가 국제학교로 등록되어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에서 관리하고 있음. 일부 학교는 사우디 교육부가 아닌 다른 기관(영국계왕립학교인 경우)에서 관리하기도 함.

- 사우디 교육부에서 외국인 학교 입학부터 교육과정 운영까지를 모두 감독하고 있으며 학교 허가를 받아야 함.
- 아랍어 및 아랍 문화에 대해 아랍어 교사가 가르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교사 자격증 보유자가 가르쳐야 함.
- 사우디 교육부 관할 외국인 학교의 모든 학생은 현지 학교처럼 사우디 교육부의 누어 시스템에 등록되어야 하며, 사우디 내로의 전출입 및 진학 시 반드시 누어 시스템의 성적 증명서를 첨부해야 함.

㉮ 이슬람 사회 문화 전반

- '이슬람' 이란 단어는 명령자(알라)의 명령에 거역함이 없는 "절대 순종과 복종" 의 의미임.
- 사우디는 건국 시 샤리아 울법에 충실한 강경 이슬람국가였으나, 최근에는 온건 이슬람 국가로 바뀌었음.
- 하루에 5번 있는 기도시간(살라)에는 다른 중동국과는 달리 모든 상점, 공공기관이 철저하게 문을 닫아야 하나, 최근에는 대형 마트나 약국 등은 이와 관계없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일부 상점이나 식당도 기도 시간에 커튼만 치고 영업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 이슬람 울법을 적용하기에 살인, 강간, 마약사범, 절도 등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며, 아직도 태형이나 참형이 존재함.
- 술, 도박, 음란물, 돼지고기(개고기) 등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음.

㉮ 현지 관광지

- 비전 2030의 영향으로 관광 비자가 활성화되었고, 관광지 개발을 위해 정부에서 적극 노력하고 있음(해외 유명 축구 선수 유입, 인플루언서 초청). 알울라 외 7곳을 추가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해 추진 중임.
- 메카, 메디나와 같은 종교 유적지에는 1년 내내 성지 순례를 위한 무슬림 관광객으로 붐빔(잠재적 관광객 20억 명).
- 젯다는 해양 레포츠 시설 등이 발달되어 있고, 담만 등의 동부 지역은 유전 지대로 많은 공장들이 있으나, 바레인과 접해 있기에 주말이면 많은 사우디인이 담만으로 많이 감.
- 대형 마트마다 1개층 규모의 놀이동산이 있으며, 2017년 영화관 재개장 후부터는 일부 대형 마트를 중심으로 영화관이 많이 영업 중임.
- 더 라인 프로젝트로 인해 타북 등 북쪽 지역 개발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음.

㉯ 화폐 및 화물운송

- 과거에는 주소가 없어 우체국 사서함을 이용하였으나 최근에는 모든 건물마다 국가 주소가 지정되어 이전보다 국내외 배송이 많이 편리해졌음.
- 화폐는 사우디 리알을 사용하며, 1SR 원화대비 약 340원 선임. 달러는 1$= 3.75 고정 환율임.
- 이슬람 율법에 의거해 은행 예치 시 이자는 발생하지 않음.
- 사우디 국내에서는 한화를 환전할 수 없음. 한국에서 달러나 유로로 1차 환전하고, 이를 다시 현지에서 리알로 환전해야 함. 환전 이체 시에도 리알에서 국내의 외화 통장으로 달러나 유로로 이체해야 함. 수수료가 이중으로 부과됨.